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보호법 발표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주요 조항을 없앨 가능성을 예상하여
주기관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보험 회사의 트랜스젠더 환자 차별 금지 규제를
발표할 예정*

Cuomo 주지사의 국내 최초 성 정체성으로 인한 괴롭힘 및 차별 금지 규제 발표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차별을 합법화하려는 Trump 행정부의 예상된 활동에 맞서 일련의 과감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서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주요 조항을 역행할 것을 예상하여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트랜스젠더 환자를 상대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트랜스젠더 개인이 건강 보험을 이용할 때의 차별 금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뉴욕에서 확실한 정책으로,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임을 재인식하도록 산업 참여자들에게 회문을 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공평성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므로 어렵게 얻은 권리와 보호법을 정부가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Trump 행정부가 한 걸음씩 후퇴할 때 뉴욕은 두 걸음 앞설 것이며 이러한 규제들로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을 보장하고 보호법을 확대하여 모든 거주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Trump 행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 성 정체성 기반 보호법을 포함하여 성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보호법을 명시하는 연방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호 부분을 삭제하면 약 90,300명의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불평등하고 노골적이며 불법인 차별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주지사는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주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 환자를 상대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환자 권리 성명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규제를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규제는 그러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이 성 정체성 차별을 포함하는 성차별로부터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을 보호하도록 명시하는 규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날 보건부(DOH)의 규제는 인권국(DHR)의 이전 조치에 기반하며 이제는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으로 이전 조치를 강화합니다.

보건부(DOH)가 제안한 규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건강 보험을 이용하려는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해 이전 건강보험 개혁법(ACA)의 보호를 넘어 차별 금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새 규제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ACA)은 이전에 트랜스젠더들이 개인 및 소규모 집단 건강 보험 정책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보호했으나 큰 규모의 집단 정책과 관련한 보호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융서비스부(DFS)는 대규모 단체 정책의 집행에서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또한 산업 참여자들에게 회문을 발행하여 개인 및 소규모 단체 정책에서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은 뉴욕에서 이미 금지임을 재인식하도록 알릴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2017년 워싱턴 연방 정부의 차후 조치에 상관없이 뉴욕에서 건강보험 개혁법(ACA)의 차별 금지 보호 전 범위가 보존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의 회문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금융서비스부(DFS)가 제안한 규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마침내 오늘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공공 자료표를 발행하여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이 특별히 병원에 적용되며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함을 알릴 것입니다. 인권국(DHR)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집행하고 강화합니다.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인은 이하 기재된 인권국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연락하기를 권장합니다.

인권국(DHR)의 자료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병원에서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불법 차별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개인의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평등한 병원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것,
- 시설에서 트랜스젠더들을 반기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

- 개인이 선호하는 이름 또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는 것,
-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화장실 또는 기타 시설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
-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비웃는 것,
- 트랜스젠더가 차별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Howard Zuck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에는 모든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뉴욕주는 트랜스젠더들 편에 있으며 그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합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Maria T. Vull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건강 보험 보장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로 **Cuomo** 주지사님과 금융서비스부(DFS)는 다시 한 번 뉴욕주가 모든 뉴욕 주민이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필요한 건강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의 Helen Diane Fost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은 다른 이들과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괴롭히고 차별하는 병원 및 의료계 직원들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기소될 것입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 서비스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이 위대한 뉴욕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취하신 조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므로 이에 찬사를 보냅니다.”

보험 위원회 Kevin A. Cahill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께서 주 기관에 모든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할 규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에 갈채를 보냅니다. 뉴욕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적 관행을 멈춤으로써 뉴욕 주민들이 앰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보험 회사들이 책임을 지고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 지역사회 센터(New York City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Center)의 Glenda Testone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께서 연방 정부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노력을 하신 것에 갈채를 보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뉴욕 주민은 의료 서비스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위대한 주에서 질 좋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 이 조치들은 이미 모두의 평등을 실현한 뉴욕주의 역사에 기반합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모든 뉴욕 주민이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Trump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존엄성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뉴욕은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아가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할 것입니다.”

뉴욕 트랜스젠더 옹호 단체(New York Transgender Advocacy Group)의 **Kiara St. James**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거주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지치지 않는 리더가 있어 행운입니다. 최근의 조치로 기본 및 중요 의료 서비스가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차별적 엠파이어 스테이트 보험 회사 상업 관행을 중단하고 뉴욕을 희망이 가득하며 모든 이를 수용하는 곳으로 보장할 규제를 제안하신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데스티네이션 투머로우(Destination Tomorrow)의 **Sean Coleman**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위험한 미사여구와 무정한 행동은 반 뉴욕적이며 반 미국적입니다. 뉴욕에서 Cuomo 주지사님은 계속해서 뉴욕주가 모든 종류의 편견 또는 차별을 허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며 모두를 위한 공평함 및 정의를 보장할 이성의 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오늘 주지사님께서 취한 조치로 연방 정부가 시도하려는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건강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앞으로 더 나은, 더 통합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뉴욕 주민은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차별 혐의 일 년 내에 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법:

- 인권국 웹사이트 www.dhr.ny.gov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공증 받기 전 진정서에 사인해야 하며 완성본을 인권국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또는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인권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주십시오.
- 인권국 사무실 중 한 곳으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연락하여 진정서 및/또는 진정서 제출에 관한 기타 지원을 받으십시오.

인권국에서 진정서를 조사할 것이며 차별이 일어났다는 상당한 근거를 찾을 경우 해당 사건은 공청회에 보내집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2015년 10월,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통해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법규는 모든 트랜스젠더가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지사 신분으로 성정체성, 트랜스젠더 상황, 성별 불쾌감을 이유로 학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주 단위 법규를 발표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